

## 서울, 경기 일부지역의 이유식 이용실태 조사

이영실\* · 한영실

\*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

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

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인 일산, 분당에 거주하는 생후 만 10개월에서 만 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유식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다.

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은 적어지고, 혼합영양은 높았다. 이유식 종류로는 시판이유식과 직접 만든 것의 결합이 52.0%, 직접 만든 것만 먹인 경우는 24.0%, 시판이유식만 먹인 경우는 14.9%였다.

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, 직업이 있을수록,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, 모유영양보다는 혼합영양 및 인공영양일 경우 수입이유식의 이용이 유의적으로 많았다.

이유식에 관한 교육은 94.5%가 필요하다고 하였고, 교육 내용으로는 40.8%가 월령에 맞는 진행방법에 대해, 30.5%는 이유식 만드는 법이라고 답하였다.

이유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본인의 이유지식에 확신이 없다고 하였다. 또한 대부분이 이유식의 영양적인 면을 중시하며, 이유식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.